

2017 고원에서 부르는 노래 VOL.1






진안 노래 한다

signed by asahi 010-3678-4835 http://asahiplay.co.kr

2017 고원에서 부르는 노래 VOL.1



2017. 6.9 금요일 pm 5:00
진안군 백운면사무소 다목적 Hall

| 주최 |  사)한국음악협회 진안지부
| 주관 |  진안 마이싱어즈  진안 오케스트라  진안 어린이합창단
| 후원 |  진안군 백운면, 진안 마이음지역아동센터,
백운 예술지역아동센터, 마령 진안사랑지역아동센터
| 공연문의 | 사)한국음악협회 진안지부 063.433.1263

산유화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진안 마이싱어즈



안 마이싱어즈는 2011년에 창단 이래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진안군 여성들이 아름다운 선율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며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의 정서함양을 위해 매년 연주회를 개최하고 특히 "고에서 부르는 노래"를 통해 새로운 노래와 보급을 통해 군민과 공하며 예술적 감흥을 주고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지역민 행복을 디자인하는 진안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진안군을 만들기 위한 문화사절단의 대표아이콘이 될 진안 마이싱어즈의 위상을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1 구성숙 정현자 최경숙 임여향 한영자 문보라 서서희
이하영 김지수 노승미

2 윤선숙 엄영란 박민희 김다정 이은빛

lto 박종숙 정여숙 김솔미 이하나

진안 어린이합창단



진안 어린이합창단은 진안을 사랑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진안지역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2013년 꿈과 희망을 노래로 표현하여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진안 어린이합창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창단 이후 정기 공연으로 '2013년 희망을 노래하다', '2014년 고원에서 부르는 노래', '2015년 희망을 노래하다', '2016년 진안을 노래하다'를 통해 정기연주를 가졌으며 '2016년 진안홍삼축제의 여는 무대 및 공연'을 통해 꿈과 사랑, 희망을 담아 모든 사람들이 노래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명으로 시작된 단원이 지금은 진안에 거주하는 초, 중학생 7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진안 유일한 어린이와 청소년합창단으로 합창문화가 척박했던 진안군에 어린이합창이라는 씨를 뿌려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가져왔으며 우리 지역의 정서와 삶이 녹아져 노래문화와 합창문화의 큰 이미지를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안 어린이합창단은 그동안의 슬픔과 분노를 치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복전도사로서, 진안 군민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자리를 넘어 향후 진안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아름다운 정서를 담아 초청하는 나라에서는 진안 어린이합창단만의 색깔로 진안을 홍보하며 우리고장을 알리는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안읍 전하열 최다연 김태은 정 단 홍수예 하지수 김수민 송유리 우이형
고재경 김민화 이다연 오은채 김수빈 박세연 조서연 김성유 김수희
구나영 박상민 황준현 구경민 손창우

백운면 주지연 박수진 황세빈 김보민 임재광 김지우 김민재 주유하 양대필
임도훈 김고호 주하영 이서희 강채은 유혜미 이서희 임유진 고지민

마령면 박해인 김지훈 김은혜 신은지 임서진 이미소 안현정 박가인 이동하
신지연 이지민

진안 오케스트라



'음악이 흐르는 곳, 그 곳은 바로 아름다움과 행복이 충만한 곳입니다'. 진안 오케스트라는 아마추어 및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순수 오케스트라입니다. 2012년 창단되어 6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진안 오케스트라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연주를 잘하는 능력과 재능을 뽐내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희망을 주고 존경을 받는 단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어느 것도 영원함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 변화와 노력을 창조하고 관리하는 일이 바로 진안 오케스트라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